정보

Arvo Pärt, Berliner Messe

개요
곡명: Berliner Messe
작곡가: Arvo Pärt (1935–)
원작: 1990년, SATB 독창과 오르간
현악판: 1991년 완성, 2002년 개정
초연: 1990년 5월 24일, 베를린 성 헤드비히 대성당 예배, Paul Hillier 지휘 ·Theatre of Voices
텍스트: 라틴어 미사 통상문과 절기 선택 구절
장르: 전례와 연주회에 사용할 수 있는 미사곡

Wikipedia: Berliner Messe

Arvo Pärt의 Berliner Messe는 1990년에 완성한 미사곡으로 , 이 글은 SATB 독창과 오르간을 위한 원작과 혼성합창 또는 독창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후속 판본을 함께 다룬다. 작품의 중심에는 Kyrie, Gloria, Credo, Sanctus, Agnus Dei라는 미사 통상문이 놓이고, 성탄과 성령강림에 쓰는 Alleluia 구절 및 Veni Sancte Spiritus가 선택적으로 삽입된다.

출판 정보와 자료

Berliner Messe는 베를린에서 열린 제 90회 독일 가톨릭의 날을 위해 위촉되었다 . Arvo Pärt Centre는 이 행사가 베를린 장벽 붕괴 뒤 처음 열린 독일 가톨릭의 날이었다고 기록하며, 1990년 5월 24일 성 헤드비히
대성당 예배에서 Theatre of Voices가 Paul Hillier의 지휘로 원작을 초연했다고 설명한다.

현악 오케스트라판은 1991년에 완성되어 1991년 12월 18일 에를랑겐 성 마르크 교회에서 초연되었다 . Arvo Pärt Centre는 Süddeutsches Vokalensemble과 Kammerorchester Schloss Werneck, Rolf Beck의
지휘를 기록하고, Bayerischer Rundfunk 합창단 자료는 같은 현악판 초연의 지휘자를 Ulf Klausenitzer로 적는다. 두 자료는 현악판 초연의 날짜와 연주 단체를 공유하면서 지휘자 표기에서 갈린다.

Universal Edition은 오르간판과 현악판을 별도 출판물로 제공하며, Arvo Pärt Centre는 현악판의 완성 연도 1991년과 2002년 개정을 구분한다. Bayerischer Rundfunk 자료에 언급된 1997년 오르간 편곡은 이 2002 년 개정 표기와 별도의 판본 정보로 남아 있다.

소요 시간

전곡은 약 25분이다. Arvo Pärt Centre와 Universal Edition의 안내는 약 25분으로 수렴하지만 , Alleluia와 Veni Sancte Spiritus를 얼마나 포함하는지 , 오르간판과 현악판 가운데 어느 판본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실제 시간이 달라진다.

편성

원작은 SATB 독창 4명과 오르간을 위한 편성이다. 현악판은 혼성합창 또는 SATB 독창 4명과 현악
오케스트라를 사용한다. Universal Edition은 현악 5부를 최소 10·8·6·6·4명 또는 8·8·6·6·4명으로 제시한다.

두 판본은 성악 파트와 라틴어 텍스트의 순서를 공유하면서 반주 매체를 달리한다. 오르간판은 초연이
이루어진 성당 예배 공간과 직접 연결되고, 현악판은 현악의 지속음과 콘서트홀의 잔향 속에서 같은 전례문을 울린다. Credo는 전례나 프로그램의 필요에 따라 독립해 연주할 수 있다.

전례문 구성

미사 통상문

작품의 기본 골격은 Kyrie, Gloria, Credo, Sanctus, Agnus Dei의 다섯 항목이다. Kyrie는 자비를 구하는 탄원, Gloria는 찬미, Credo는 신앙 고백, Sanctus는 거룩함의 찬양, Agnus Dei는 평화와 자비를 구하는 종결 기도로 기능한다. Pärt는 라틴어 문장의 음절과 강세를 음악의 진행에 직접 연결한다.

절기 선택 구절

Arvo Pärt Centre는 Gloria와 Credo 사이에 성탄용 Alleluia 두 구절, 성령강림용 Alleluia 두 구절, 성령강림 부속가 Veni Sancte Spiritus가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삽입부는 실제 예배의 절기와 연주회
프로그램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지며, 선택 구절의 수가 전곡의 길이와 전례적 범위를 바꾼다.

틴티나불리와 라틴어의 리듬

Arvo Pärt Centre는 이 작품의 음향 구조가 음절 수, 강세와 같은 텍스트의 매개변수를 엄격하게 고려한다고 설명한다. 한 성부는 선율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다른 성부는 삼화음에서 나온 음을 결합하는 틴티나불리
원리가 문장 단위의 길이와 억양을 조직한다. 강조되는 음절과 그에 대응하는 음정의 위치가 문장의 형태를 결정한다.

Bayerischer Rundfunk 합창단의 해설은 자연스러운 언어 리듬과 짧고 긴 음가의 관계가 작품의 중요한 재료라고 설명한다. Kyrie의 특정 음절에서 음이 추가되고, Gloria와 Credo에서 강조되는 음절이 늘어나며, 성부 수가 줄었다가 다시 합쳐지는 과정이 그 원리를 드러낸다. 이 사례들은 틴티나불리가 라틴어 텍스트와 성부의 배치를 함께 결정하는 작곡 원리임을 보여 준다.

판본과 실연 조건

Universal Edition은 성악보에 해석 지시가 많지 않아 템포와 다이내믹을 연주자가 결정할 여지가 있다고 안내한다. 오르간판과 현악판은 텍스트와 성악 선율을 공유하면서 반주 매체와 공간을 달리한다. 성당 예배에서 초연된 오르간판은 실제 전례의 순서와 잔향을 전제로 하고, 현악판은 합창과 현악 오케스트라의 콘서트 음향으로 같은 구조를 확장한다.

프로그램에는 통상문 다섯 항목과 선택 구절의 사용 범위, 선택한 판본, Credo의 독립 연주 여부, 현악판의 오케스트라 규모를 함께 적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작품명이 서로 다른 전례 ·연주 길이를 가리키는 상황을 구분할 수 있다.

주요 자료

Arvo Pärt Centre, Berliner Messe: 위촉, 원작 ·현악판의 연대, 초연, 전례문 선택, 2002년 개정.

Universal Edition, Berliner Messe for mixed choir and string orchestra: 현악판 편성, 연주
인원, 소요 시간, 성악보의 해석 지시 범위.
IRCAM, Berliner Messe: 원작의 편성, 작곡 ·개정 연대와 작품 정보.

Bayerischer Rundfunk 합창단, Berliner Messe 프로그램: 현악판 초연 기록, 텍스트 리듬과
틴티나불리 설명, 1997년 오르간 편곡 언급.
Musica International, Berliner Messe 서지: 판본 ·편성 서지 정보.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11:01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11:01 UTC by 안준영